



비전대, 간호학부 62회 간호사국가시험 100% 합격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한국보건직업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한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졸업생 118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학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고시 자격증 특별반' 운영이 이번 국사에서 100% 합격을 이끈 교원차 역할을 했다.

전주비전대 간호학과는 2012년 신설 입학정원 30명으로 시작해 현재 105명의 간호학부로 성장했다.

특히 '국가고시 자격증 특별반'을 운영해 4학년 졸업반이 되면 학습성도가 저조한 학생들에게는 일대일 특별지도와 야간 특강반을 진행하고 시험 30일 전에는 부진한 교과목별, 학생별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하는 등 집중지도를 하고 있다.

김경희 간호학부장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의 취업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전원 합격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100% 합격

우석대학교 간호학과가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100%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실시된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115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이 대학 간호학과는 1997년 설립,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전문 간호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5년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노준희 간호대학장은 "체계적인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과 교수들의 노력이 하나로 맞물려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간호교육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간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조지훈 전 전북경진위원장, 사회적경제 발전 공로로 감사패 받아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보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14일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사장 송병주)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조지훈 전 경진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전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과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을 역임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집중, 전북형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진위원장 재임 시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며, 경진원이 지역혁신 유공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송병주 이사장은 "전북도 사회적경제를 위해 헌신한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의 탐과 노력을 기억한다"며 "앞으로



로도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면서 "지속 가능하고 자립 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이끌며, 안정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경제 활성화 '우수 상생발전기업' 3곳 인증

전주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 3개 업체가 우수 상생발전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전주시는 14일 시장실에서 '2021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된 한실어패럴(대표 박연옥)과 (주)금강유리(대표 김정곤), 전주병원(대표 최정웅)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우수 상생발전기업은 전주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업체 중 지역생산업의 우선 구매와 지역주인의 고용 창출 등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한실어패럴과 (주)금강유리, 전주병원이 우수 상생발전기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들 3개 업체에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금 1500만 원을 지원했다.

기업들은 이 자금을 활용해 △직원후계식 공사 △화장실 운수 시스템 개선 △스캐너 운영지원 △근무복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 향상, 기타 지역 취약계층 성금 지원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2월 이달의 새농민像' 시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새농민의 3대 정신인 자립, 과학, 협동의 귀감이 되고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농민부부에게 수여되는 이달의 새농민을 선발해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2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는 정원용·천남영 부부(부자농장, 딸기, 시인 왼쪽), 박석우·김경옥 부부(행복농원, 수박) 등 2부부다.

정원용·천남영 수상자(익산원예농협)는 익산시 삼기면에서 10년 넘게 딸기재배를 해왔으며, 생산된 딸기의 90% 이상을 지역내에서 출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

하고 있다. 또한 삼기딸기공선회, 익산딸기연구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등 지역농업인의 고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 농가다.

박석우·김경옥 수상자(홍덕농협, 조합장 백영종)는 12년 경력의 선도농업인으로 고창군 성내면에서 수박, 블루베리, 두릅 재배와 벼농사를 병행하고 있다. 품목별 작목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상품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과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왔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안부살핌서비스 협약 체결

남원시는 14일 한국전력·SK텔레콤과 함께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변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으로, 3자간에 협약을 맺게 되었다.

최근 1인가구의 급증과 함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고독사까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층도 노인층에 집중되었던 것이 청년과 장년층의 위험도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AI기술을 기반으로 전력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결합해 사용패턴이 평소와 다르다면 시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어 사회복지공무원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권 지원

남원시는 2022년 상반기 1952년 6월생까지(만70세 이상)의 17,186명의 어르신에게 위생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욕권을 1인당 6매씩 지원했다.

특히, 이동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이 직접 방문해 배부를 완료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어르신 목욕권을 1인 연10매 지원하던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올 1월부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으로 연 12매를 확대 지원, 상반기에 6매를 배부하고 하반기에는 목욕 및 이·미용권으로 6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은 "하반기부터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힘에 따라 어르신이 존중받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신), 063-322-6668

